

2007년 3월 '이 달의 키워드' 행복도 연습해야 한다



‘조선’을 화두로 한 책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출판저널> 3월호 이 달의 책으로 《선비답게 산다는 것》이 선정된 것에 이어, 4월에도 조선 지식인들의 공부론은 주제로 한 《공부의 발견》이 이 달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그 밖에도 《문밖을 나서니 갈 곳이 없구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지금 조선의 시를 쓰라》 등 국내 저자가 쓴 조선 관련 서적뿐 아니라 조선을 방문한 최초의 독일 기자 지그프리트 겐테가 쓴 여행기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도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3월 한 달간 출판인들과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독서운동 ‘거실을 서재로’였다. 3월 한 달 동안 2만 3,000여 가정이 등록을 신청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서운동”이라고 평한 대한출판문화협회 박맹호(민음사 회장) 회장의 지적은 연말까지 이어질 ‘거실의 서재로’ 캠페인에 대한 기대감을 담아내기에 충분했다.

또한 ‘거실의 서재로’에 대한 폭발적 반응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가족문화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이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생각한다”는 조선일보 김문순 발행인의 지적은 이번 캠페인이 책과 가정의 연결고리를 맺는 단초가 될 것임을 명백히 했다. ‘거실을 서재로’를 통해 일어날 우리 사회 독서 열기를 기대해봄직하다.

한편 지난 3월 한 달 동안, 기자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뉴스는 의외로 단신이었다. 그것은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행복학, 일명 긍정심리학을 연구하는 석·박사 과정이 개설된다는 내용이었다. 그 주역은 지난 40년 간 시카고 대학 교수로 재직 후 현재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며 <삶의 질 연구소> 소장으로서 있는 미하이 칩센트미하이 교수로, 그는 오는 9월부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석·박사 과정을 연다.

미하이 칩센트미하이는 《몰입의 즐거움》 《창의성의 즐거움》 《플로우,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등으로 이미 국내 독자들에게 ‘행복’ 대한 일가견을 보여준 작가이기도 하다. 한편 그가 개설하는 행복학, 즉 긍정심리학은 1990년대 초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심리학의 한 분야로 인간 심리의 밝은 면을 규명하고 행복·창의력·책임감 등을 복돋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몇 권의 긍정심리학 책이 선보였다. 지난해 9월 선보인 《유티미스트》와 《긍정심리학》의 그 첫 번째 시도라면, 지난 3월 초 선보인 《행동하는 낙관주의자》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조망한 책이다. “낙관주의는 배울 수 있는 기술”임을 강조하는 《행동하는 낙관주의자》의 저자 수잔 세거스트롬은 미국 켄터키 대학의 교수이며 긍정심리학계의 거장으로 통한다.

이 책은 흔한 자기계발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등 비관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 특히 직장인들에게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인 낙관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함을 강조한다. 행복을 연습해야 하는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긍정심리학이, 그리고 이를 다룬 책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줄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자 한다. ■